

고종대 '황극(皇極)' 개념의 이해와 변용*

한보람**

〈차 례〉

- 머리말
- 고종 즉위 초반 '황극' 개념의 이해
- 친정 이후 고종의 영·정조 계승 의지와 전통적 국왕권 인식의 변용
- 맺음말

[국문초록]

고종대 국왕권 인식은 고종시대 국가개혁 논의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그런 데 고종의 국왕권 확립 움직임은 단순히 근대국가 수립의 시대적 과제에 당면해서 고종이 황제국을 선포하는 방법을 채택하면서 생겨난 갑작스러운 시도가 아니다. 영·정조대 조선에서 진행된 국왕의 정치운영과 관련한 '황극' 개념 논의의 맥락 속에 있는 것이었다.

궁궐에서 생장하지 않은 고종이 국왕권에 대한 본격적 지식을 처음 접한 것은 즉위 후 경연 자리였다. 당시 박규수를 중심으로 한 개혁관료 그룹의 일원으로 경연에 나섰던 대표적 인물 김영작의 기록「경연강의(經筵講義)」내용을 통해 경연 자리에서 고종에게 전달된 국왕권의 핵심은 임금과 신하의 존중과 상호보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위 초 고종은 임금의 권한과 황극의 의미에 대해 신하들에게 질문하고 교육받는 위치에 있었다. 1873년(고종 10) 친정 이전까지 고종은 여전히 국왕 교육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왕이 국론을 주도한다는 측면의 황극 논의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영·정조대를 본받아야 한다는 당위도 국왕이 국정的主导者로서 서야 한다는 의미이기보다는 군신 간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고종에게 이해되었다.

그렇지만 친정 이후에는 고종의 정국주도 노력 속에 국왕권 인식과 황극 용어 활용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친정 선포 직전 고종은 규장각을 모방한 건청궁을 건축하여 정조 계승을 통한 국왕권의 확립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황극' 용어는 주로 국왕의 표준을 세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유생들의 상소에 나타났다. 현실에서 국왕의 역할론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 이 논문은 2023년도 국가평판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대전대학교 강사

이 시기까지도 고종이 황극론을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국왕이 표준을 세워야 한다는 요청은 아관파천 때부터 대한제국 수립 시기에 강력한 요구로 재등장했다. 황극을 세우고 과감히 결단하여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궁할 것, 황극을 세워 칭제할 것 등을 요구하는 상소가 이 시기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후 갑오개혁 세력 제거, 흥선대원군 사망,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세력 진압으로 전제군주제 확립의 기반이 조성되었고, 고종은 1899년(광무 3) 「대한국국제」를 통해 무한한 군권의 향유를 선언하며 황제권의 적극적 확보를 시도했다. 그런데 이때의 황극 용어는 단군과 평양, 사도세자 추송, 정조와 영조 흡송 관련 기록에서만 등장한다. 당대 황극론은 영·정조대 군주권에 대한 군신 간 논의와 현실 정치에서 활용을 벗어나 황제국 수립 과정에서 황제의 전제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용에 그쳤다.

고종 초기 황극 개념은 국왕과 신하 간 조화의 측면에서 고종에게 학습되었다. 하지만 이후 고종은 정치 주도권을 자신에게 가져오려고 시도하면서 황극 개념도 국왕 중심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용도로 변화시켰다. 고종은 전통적 국왕권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었다. 그렇지만 황극 개념은 영·정조대의 철학적 논의에서 나아갔다가보다, 전통적 정국 운영 개념을 기반으로 당대 황제주도권을 확립하는 용도로 변용되었다.

[주제어] 황극, 「경연강의(經筵講義)」, 대한국국제, 국왕권, 김영자

1. 머리말

고종대 국왕권 인식은 고종시대 국가개혁 논의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고종은 고종시대의 국가적 개혁정책들, 즉 1880년대 서구 문물 도입정책을 비롯하여 1890년대 황제국 선포와 광무개혁 등을 통해 국정을 주도해 나가고자 하였다. 하지만 당대 각 정치세력 간에는 개혁과 변화의 주도권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은 자신을 둘러싼 분분한 입장과 시각을 딛고 국정을 이끌 기반이 되는 독자적 국왕권의 확립이 필요했다.

그런데 고종의 국왕권 확립 움직임은 단순히 근대국가 수립의 시대적 과제에 당면해서 고종이 황제국을 선포하는 방법을 채택하면서 생겨난 갑작스러운 시도가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정조대에 이미 조선에서는 국왕의 정치운영에 대해 ‘황극(皇極)’ 개념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¹⁾ 이러한 논의는 19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했고, 고종대에도 역시 국왕의 권한 및 역할과 관련하여 ‘황극’ 개념을 이용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황제권 확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1899년 법규교정소 설치 조서의 첫머리에 '임금이 큰 표준을 세우는 것은 백성들이 본받게 하기 위해서이다.[皇建有極者, 蓋欲使民取法也]²⁾라고 한 것은 '황극' 개념을 이용해 자신의 개혁구상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는 대한제국기 황제권 확립과 관련된 일련의 시도들이 당대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닌, 조선 후기 이래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종대 국왕권 인식 문제와 관련하여 그 이전 시기인 영·정조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선후기의 긴 역사적 흐름 속에서 맥락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당대의 국왕권에 대한 논의, 그리고 고종이 스스로 이해하고 변용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이 수행된다면 고종 즉위 이후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이어지는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근간으로 삼고 있었던 국가리더십을 사상적 흐름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당대 정치가 추구했던 국가 운영론의 실체에도 한층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고종의 군주권 강화와 관련된 논의는 지금까지 한국근대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주로 관련 연구들은 고종의 전제권 강화에 대해 비판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으로 나뉘었다. 비판적 시각에서는 대한제국기 고종이 「대한국국제」 반포를 비롯한 각종 조치를 통해 황제권 전제화를 시도했던 모습에 대해, 근대적 개혁을 이루어야 할 시점에 유교 이념에 입각한 고종의 전제권을 강조한 한계,³⁾ 황제권이 사적 권력으로 기울어지면서 국민국가 구상을 좌절시킨 한계,⁴⁾ 황제권의 위상 강화로 절대왕정과 유사한 체제를 형성하려 했던 한계⁵⁾ 등을 지적했다. 반면, 긍정적 시각에서는 일촉즉발의 대외적 위기

1) 이민정, 「林世采의 '皇極' 인식과 君主像」, 『한국사론』 5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11; 김호, 「요순 정치의 회복, 다산 정약용의 홍범(洪範)론」, 『한국학연구』 6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최성환, 「영·정조대 중역 시비와 황극의 역할」, 『한국사상사학』 66, 한국사상사학회, 2020; 나중현, 「조선후기 제왕학의 발달과 정조의 황극론」, 『태동고전연구』 51,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3.

2) 『승정원일기』 광무 3년(1899) 6월 23일.

3) 서진교,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실 추송 사업과 황제권의 강화의 사상적 기초」, 『한국근현대사학회』 19, 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4) 도면화, 「황제권 중심 국민국가체제의 수립과 좌절」, 『역사와현실』 50, 한국역사연구회, 2003.

상황에서 대한제국의 독립유지와 개혁사업의 추진을 위해 황제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측면이 조명했다.⁶⁾ 이와 같은 기존 연구성과의 시각들은 대한제국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우리 근대의 역사상을 세우기 위한 필수적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시대적 범주를 조선후기로 확장하여 고종 군주권과 관련된 당대 개념의 실체를 조선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고종이 즉위한 이후 국왕으로서 고종의 태도와 권한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런데 고종의 즉위가 19세기 세도정권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여 국왕권의 회복을 도모한 개혁적 정치세력의 적극적 주도로 이루어졌으며,⁷⁾ 그들이 고종의 즉위 초반 국왕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도정권의 몰락으로 갑작스럽게 국왕이 된 고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이들 정치세력으로부터 국왕의 역할을 끊임없이 교육받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고종의 국왕권 확립은 세도정권의 독단적 정국운영을 비판하며 영·정조대 국왕권 회복을 도모했던 19세기 초반 정치세력의 영향력, 즉 조선후기 국왕권 논의와 시대적 고민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연구들에서는 조선의 전통적 국왕권 논의와 고종대 국왕권 확립 시도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했다. 물론 고종이 제국 선포 후 황실 선조의 추송 사업을 시행한 점,⁸⁾ 정조의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고자 한 점⁹⁾ 등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당시의 단편적인 사업들을 들어 영·정조대와 고종대의 연결성을 단순 추정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성과들을 기반으로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하여 고종대 국왕권에 대한 당대 논의가

-
- 5) 왕현중,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와 개혁 논리」, 『역사학보』 208, 역사학회, 2010.
 6) 이윤상, 「대한제국기 황제 주도의 재정운영」, 『역사와현실』 26, 한국역사연구회, 1997;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7) 한보람, 「19세기 시무개혁 세력의 성장과 개혁론의 성격 - 박규수와 어윤종의 계승 양상을 중심으로 -」, 『한국사상사학』 64, 한국사상사학회, 2020.
 8) 서진교, 앞의 논문, 2001; 조재근, 『고종과 대한제국 - 황제 중심의 근대 국가체제 형성』, 역사공간, 2020, 114~118쪽.
 9) 장영숙, 『고종의 정치사상과 정치개혁론』, 선인, 2010, 101~107쪽; 이태진, 앞의 책, 2000, 248~269쪽.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논의 지형 속에서 고종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를 해당 시기 '황극' 개념의 용례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종 황제권 강화 시도의 당위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 고종의 국정 주도권 강화 시도가 조선후기적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종의 친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나누어 보았다. 우선 고종 즉위 초반 '황극' 개념의 이해를 살펴보기 위해 고종 즉위 초반 관료집단의 국왕권 인식과 국왕 교육의 실상을 파악하고, 당시 고종의 국왕권 관련 반응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고종이 친정에 임하며 정치적 주도권 확보를 시도한 이후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선대왕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영·정조대를 계승하고자 했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국왕권 확립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던 시점의 국왕권 인식이 어떻게 정조대와 맞닿아 있으며 또 변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고종 즉위 초반 '황극' 개념의 이해

1) 고종 즉위 초 개혁관료 집단의 국왕 교육과 국왕의 역할

고종 즉위 초 박규수를 중심으로 한 개혁관료 집단은 경연관을 맡아 국왕 교육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세도정치기에 국왕과 협력하여 국왕 중심의 국정 운영 정상화를 시도하였고, 철종대에는 농민항쟁의 국가적 위기의 최전선에서 대처했던 관료집단으로, 고종 즉위 후 국정 안정을 이룩하는 데 한 축을 담당했던 세력이었다.¹⁰⁾ 고종은 세도정권을 종식시키고자 했던 개혁적 관료세력의 협조와 함께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이들은 즉위 초반 경연

10) 박규수를 중심으로 한 개혁관료 집단에 대해서는 한보람, 앞의 논문, 2020의 내용 참조.

관으로서 고종의 국왕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 개혁관료 집단이 경연에서 국왕에게 교육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눈에 띄는 자료는 김영작의 『소정고』 「소정문고(邵亭文稿)」 권4, ‘경연강의(經筵講義)’이다. 김영작은 박규수가 ‘기억하건대 갑자년(1864) 봄에 나는 소정과 같은 날에 강관의 명을 받았고, 이후로 4, 5년 동안 나는 안절(按節)하러 지방에 거처하였으므로 경서를 끼고 대궐 뜨락에 오른 날은 소정이 더 많았다.’¹¹⁾라고 회고했을 만큼 고종 경연관으로서 개혁 관료세력의 대표 주자였다. 그가 남긴 『소정고』에는 1864년(고종 1)부터 1868년(고종 5)까지 총 27건의 경연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데,¹²⁾ 이 자료의 분석을 통해 김영작으로 대표되는 개혁관료들이 상정하고 있었던 국왕의 모습과 고종에게 교육하고자 한 국왕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경연강의’에 나타나는 김영작의 고종에 대한 인식은 부족함이 많은 존재로서 국왕이었다. 잠저에서 자란 후 12세에 즉위한 고종은 궁궐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국왕 교육을 받았던 헌종 이전의 왕들과 경험면에서 차이가 났다. 뿐만 아니라, 고종의 입지 역시 왕실 방계혈족이었기 때문에, 왕실 적통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헌종과는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고종이 국왕권에 대한 지식을 처음 접하게 된 경연 자리에서 김영작은 갑자기 등극한 국왕에 대해 기본 소양을 닦을 것을 지적하고 당부했다. 국왕 고종과 관계의 기반은 신하가 이끌어야 하는 존재, 부족함이 많은 존재로서 국왕이었다.

김영작은 ‘지금 강석(講席)을 삼가 살펴보건대 고종이 문의(文義)를 대략 이해하니 자못 장족의 발전은 있지만 통독(通讀)의 경우에는 한 달 전보다 나아졌는지 알 수 없으니 이는 고종이 정신을 집중하여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은 소치’¹³⁾라고 하면서 고종이 부지런하게 학습하지 않는 점을 질타하기

11) 朴珪壽, 『職齋集』 「題邵亭遺墨帖」

12) 그중에서도 6건의 내용은 『승정원일기』에서도 경연이 있었던 사실 외에 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자료이다. 나머지 21건 또한 『승정원일기』와 텍스트를 비교해본 결과 차이가 나타난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 부분만 『소정고』에 수록했거나 혹은 『승정원일기』에 없는 문구가 존재하는 경우 등이다.

13) 『승정원일기』 1864년 5월 11일. “今者講席, 伏觀聖上, 領略文義, 頗有長進, 而至于誦讀, 臣愚未敢知其有勝於一月之前, 此由於聖心未能專一勤意下工之致矣. 見今勅行不遠, 事務旁午, 臣

도 했고, ‘강학할 때 정신을 극도에 도달하게 해야 장차 빛나는 광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¹⁴⁾이라고 하면서 공부할 때의 마음가짐과 정신상태를 당부하기도 했다.

‘경연강의’에서 김영작이 고종에게 전달한 국왕권의 핵심은 임금과 신하의 존중과 상호작용이었다. 1866년(고종 3) 9월 12일 『자치통감』을 학습하는 진강 자리에서 고종은,

“숙손통(叔孫通)이 상에게 유세(遊說)하였다고 한 말에서, 유세했다라고 하였으니, 상에게 아뢰었다고 했어야 할텐데 상에게 유세했다[說]고 한 것은 어찌 서인가?”¹⁵⁾

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영작이,

“조정의 의례가 일어나기 전이라 멋대로 큰소리치고 칼을 빼어 기둥을 치는 일까지 있었으니 또한 이런 일도 있게 된 것인 듯합니다.”¹⁶⁾

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주(周) 나라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조정에서는 군신(君臣)이라 하고 연석(燕席)에서는 빈주(賓主)라 하였으니, 예법 가운데 실정과 뜻이 서로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삼대(三代)의 정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진(秦) 나라 때에는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억눌러 그 사이가 매우 엄격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손통이 조정의 의례를 일으킬 때 진 나라의 구습을 답습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方還營，似於五六十日後，始可入都，其間專心勤工，大有長進，臣所區區願望者，若或悠泛，則非但臣所缺望，殿下亦安得無愧心乎？”

14) 『邵亭文稿』권4, 「經筵講義」甲子(1864) 七月二十八日, “今以講學言之, 殿下誠能精神到極, 將見緝熙光明之效.”

15) 『승정원일기』 1866년 9월 12일. “上曰, 叔孫通說上之說字, 宜曰奏上而曰說上, 何也.”

16) 『승정원일기』 1866년 9월 12일. “永爵曰, 聖教至當, 不曰奏上而曰說上者, 未可臆斷其何意, 或者朝儀未起之前, 至有妄呼擊柱之舉也, 故有是歟.”

후세에서 다시 주 나라 때와 같은 훌륭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¹⁷⁾

그는 임금과 신하가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었던 주나라의 모습을 비판했다. 임금과 신하가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었던 주나라의 예법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영·정조대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이어진다.

“전하께서는 강연 때마다 한 번 질문하는 외에는 다시 묻고 논란하지 않으시니 대답한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진강 뿐 아니라 모든 경연에서 위아래가 수답하여 혹 경사(經史)의 뜻을 토론하기도 하고 혹 민간의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 자문하기도 한다면, 성상의 뜻에 더욱 개발되는 보탬이 있고 아래사람들의 마음에 막히는 근심이 없게 되어 유통하고 서로 미더워 장차 뜻대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전하께서 혹 정원에 있는 영묘(英廟)와 정묘(正廟) 때의 일기(日記)를 가져다 보시면 조종(祖宗)의 성대한 시절에 임금과 신하가 상호보완이 되었던 아름다움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살피소서.”¹⁸⁾

고종이 신하들과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하지 못함을 답답해하면서 경연 자리에서 경서와 사기의 뜻을 토론하고 민생을 질문해야 국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영조와 정조대를 ‘조종의 성대한 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대했던 시대에 임금과 신하는 상호 보완되었다고 회상했다. 영·정조대를 이상적으로 보면서도 그것이 이상적일 수 있었던 이유로 군신 간 소통을 들어 국왕권이 국왕의 일

17) 『邵亭文稿』 권4, 「經筵講義」 丙寅(1866) 九月初二日. “臣奏曰. 周家君臣之際, 朝曰君臣, 燕曰賓主, 禮法之中, 情意相孚. 故能成邗隆之治. 至秦時, 尊君抑臣太過, 廉陛始截嚴矣. 叔孫通起朝儀, 多襲秦舊, 故後世未見周家之盛, 專由於是也.”: 「經筵講義」에는 앞부분의 대답이 생략되고 이 부분이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김영작 답변의 핵심 부분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8) 『邵亭文稿』 권4, 「經筵講義」 丁卯(1867) 五月初三日. “殿下每於講筵, 一次發問之外, 更不問難, 臣不勝抑鬱之至. 非但講筵, 凡於管接臣隣, 或討論經史旨義, 或咨詢閭巷疾苦, 則聖志有開發之益, 下情無壅闕之患, 流通交孚, 治將倏志. 殿下試取覽英廟正廟朝政院日記, 則庶可燭祖宗盛際君臣相須之美. 伏願澄省焉.”

방적인 정국운영이 아니라 신하들의 의견을 잘 듣고 소통하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 개혁관료들의 논의에서 특히 정조는 성스럽고 신령한 자질로 임금의 자리에 임했던 이상적 국왕으로 표현되는데, 그러한 성스러움의 이유는 인재를 널리 구하고 신하와 뜻을 합했던 것에 있었다. 이는 박규수가 해당 집단의 일원인 윤정현(尹定鉉)의 아버지 윤행임(尹行恁)의 묘지명을 작성하면서 '우리 정조대왕께서는 성스럽고 신령한 자질로 임금의 자리에 임하시어 영재를 널리 모아 인재를 기름에 늘 부족한 듯 급급해 하셨다. 공은 이러한 시대에 세상에 나오셨으니, 한결같이 임금과 신하의 뜻이 합치된 성대함은 전대에도 비할 사람이 드물 것이다.'¹⁹⁾라고 하여 정조와 윤행임 사이 군신 간 소통을 찬탄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위 초 고종을 지도하던 박규수 그룹 개혁관료 집단의 국왕에 대한 인식은 정통성 없는 국왕 고종을 자신들이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고종에 대해 아직 미숙한 임금을 바르고 현명한 신하들이 이끌고 경계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단지 당대 국왕이 고종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통적 조선 관료집단의 일원으로서 이들의 국왕권 인식은 국왕 중심의 정국운영보다는 왕과 신하의 협업에 포인트가 두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신료 집단의 인식은 즉위 초기 고종에게 이상적인 국왕상으로서 교육, 전달되고 있었다.

2) 친정 이전 고종의 '황극' 개념 인식과 국왕 주도 정국 구현의 제약

즉위 초반 고종의 역량은 국정을 이끌어 가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 당시 고종은 국왕의 위상과 황극의 의미에 대해 신하들에게 질문하는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언급한 『자치통감』의 진강 자리에서 고종은 숙손통이 임금에게 아뢰었다[奏]고 하지 않고 유세[說]했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19) 『獻齋集』「吏曹判書贈領議政尹公行恁墓誌銘」, “我正宗大王以聖神之姿, 臨君師之位, 蒐羅英俊, 作成人材, 汲汲如不及焉. 而惟公應時而作, 終始契合之盛, 前代罕比.”

물었다.²⁰⁾ 국왕과 신하의 위계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국왕의 위상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또한, 고종은 황극의 뜻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1868년(고종 6) 『논어』를 진강하는 경연 자리에서 조성교(趙性敎)가 ‘요(堯) 임금과 순(舜) 임금의 정일 집중(精一執中) 및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의 건중 건극(建中建極)이 곧 전후로 전수한 심법(心法)이며, 진실로 백성의 법이 되고 만방(萬方)의 의표가 될 수 있는 큰 근본’이라고 설명하자,²¹⁾ 고종은 ‘극(極)은 황극의 극일 것’이라고 하면서 ‘건극(建極)’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다.²²⁾

이에 대해 강관 조성교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홍범 구주(洪範九疇)에 황극이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황은 크다는 뜻이고 극은 중도의 뜻이니, 이는 크게 중도에 맞는다는 뜻입니다. 임금이 크게 중도에 맞는 도를 세움에 사방이 법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 잠심(潛心)하고 완미(玩味)하여 무엇이 당(堂)에 오른 것이며 무엇이 실(室)에 들어간 것이며 무엇이 지나친 것이며 무엇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 깊이 그 까닭을 연구하여 묵묵히 알고 널리 통한다면, 집중(執中)과 건극(建極)의 공효와 백성의 법이 되고 만세의 의표가 되는 효과가 또한 오직 전하의 일심상의 운용이 어떠하나에 달려 있습니다.”²³⁾

국왕의 자리에 있는 자라면 크게 중도에 맞는 도를 세워야 하며 모든 신민이 그에 동의하고 기준으로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답변이었다. 고종이 마음을 집중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이고 있다.

20) 『승정원일기』 1866년 9월 12일. “上曰, 叔孫通說上之說字, 宜曰奏上而曰說上, 何也.”

21) 『승정원일기』 1868년 5월 15일. “堯·舜之精一執中, 湯·武之建中建極, 卽前後傳授心法, 而充爲章百姓表萬邦之大本也.”

22) 『승정원일기』 1868년 5월 15일. “上曰, 極是皇極之極, 而建極之義, 何如.”

23) 『승정원일기』 1868년 5월 15일. “性敎曰, 洪範九疇, 皇極居五, 皇大也, 極中也. 是爲大中之義, 人君建立大中之道, 而四方之所取則者也. … 潛心玩味, 何者爲升堂, 何者爲入室, 何者爲過, 何者爲不及, 深究其所以然, 默識而傍通之, 則執中建極之工, 章百表萬之化, 亦惟在於殿下一心上運用之如何”

그렇지만 영·정조대 국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황극론의 실재를 친정 이전의 국왕 고종이 현실에서 구현하기는 힘들었다. 고종 친정 이전까지 황극 개념은 차대나 진강 자리에서 종종 언급되고 있었지만,²⁴⁾ 국왕이 국론을 주도한다는 실질적인 의미까지 닿지는 못했다.

1869년(고종 6) 차대 자리에서 영의정 김병학(金炳學)은 효명세자(익종)의 회갑 제사를 논하면서 『홍범(洪範)』의 황극을 언급했다.

“『효경』에서 제왕의 효를 논하면서 백성을 화합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고, 『홍범』에서 황극의 복을 서술하면서 먼저 ‘임금이 그 복을 퍼서 백성들에게 주라.’ 하였습니다. 대개 나라는 백성을 의지하기 때문에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 없으니, 임금과 백성이 서로 도와주는 것의 중차대한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²⁵⁾

그런데 여기에서 황극은 ‘국왕이 복을 퍼서 백성에게 베푸는 것’ 정도로 고종에게 설명되고 있으며, 임금이 복을 베풀면 임금과 백성이 서로 도와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다. 김병학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논했다.

“『효경』에서 말한 효를 극진하게 하여 백성을 화합하게 하고 황극의 복을 모아서 백성들에게 주고, 항상 백성들의 일이 어려운 것을 생각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도록 힘쓰소서. 지극한 인(仁)과 지극한 선(善)이 백성들의 골수에 흠족하게 배어들면, 억 만년의 무궁한 왕업이 오늘날에 기반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어찌 성대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너무 높고 멀어 행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고, 오직 그 도리는 학문을 강론하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 그렇게 본다면, 역시

24) 고종대 『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황극’ 용어가 쓰인 기사는 『실록』 총 17건, 『승정원일기』 총 32건이며, 두 사료 간 중복을 제외하면 총 37건을 찾을 수 있다. ‘황극’ 용어는 진강(3건), 상소 및 주청(18건), 차대(2건), 교서(14건)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 고종 친정선포 이전인 1873년까지는 총 8건(차대 2건, 진강 2건, 교서 3건)이 나타난다.

25) 『승정원일기』 1869년 3월 8일, “孝經, 論帝王之孝, 而終之以和其民人, 洪範敍皇極之福, 而先之以敷錫庶民, 蓋國依於民, 非民則無以爲國, 君民相與之重此[且]大, 有如是矣.”

전하의 효도는 오직 학문을 강론하는 일에 있을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끊임없이 힘쓰소서.”²⁶⁾

김병학은 황극의 복을 모아서 민생에 힘써야 한다고 논했지만, 이는 고종이 주도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인간 도리의 기본인 효를 극진하게 하는 바탕에 힘써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학문을 갈고닦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당부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고종이 왕위에 오르고 몇 년이 흐른 시점에도 여전히 국왕으로서 주도권을 갖기는 힘들었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 준다. 국왕이 국론을 주도한다는 의미의 황극론은 여전히 고종에게 적극적 실현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단계였으며, 여전히 신하들의 주도로 국왕 고종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위 초기 경연 자리에서 고종은 『자치통감』 학습 시 국왕과 신하의 위계에 대한 질문하며 국왕의 위상에 관심을 보였지만, 황극은 임금의 복을 펴서 백성에게 베푸는 것 정도의 원론적인 의미로만 고종에게 설명되었다. 친정 이전까지 관료들의 교육 대상이었던 고종으로서는 국왕이 국론을 주도한다는 의미의 황극론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 힘들었고, 영·정조대를 본받아야 한다는 당위도 국왕이 국정의 주재자로서 중심에 서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국왕으로서 군신 간 소통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고종에게 이해되었다.

3. 친정 이후 고종의 정조 계승 의지와 전통적 국왕권 인식의 변용

1) 친정 이후 고종의 정국주도 노력과 정조계승책

고종은 1873년(고종 10) 친정을 전후하여 선대왕 계승 의지와 함께 정국

26) 『승정원일기』 1869년 3월 8일, “惟殿下盡孝經之孝, 而和其民, 集皇極之福, 而錫厥民, 恒軫民事之艱難, 克圖民力之裕足, 至仁至善, 浹髓淪肥, 則萬億無疆, 基于今日, 豈不盛矣哉, 此非高遠難行之事也, 顧其道, 卽不過曰講學而已. … 然則殿下之孝, 惟講學是已. 伏願懋哉懋哉.”

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러한 고종의 정국주도 노력 속에서 황극 개념과 관련된 논의 양상도 변화를 보인다.

이 시기 정국을 주도하는 국왕으로서 고종이 서고자 했던 노력을 건청궁(乾淸宮)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고종은 친정 선포 직전의 시점에 경복궁 내 건청궁의 건축을 추진했다. 건청궁은 창덕궁의 규장각 건물이었던 주합루(宙合樓)와 서향각(書香閣)을 모방한 것으로, 고종의 정조 계승 의지를 담고 있는 건물이다. 그런데 경복궁 중건 공사가 착수되었던 1865년(고종 3)에도 이미 창덕궁의 연경당(演慶堂)과 의두합(倚斗閣)이 수리되었다. 이 두 건물은 효명세자의 정조 계승 의식과 왕권강화 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물이었다.²⁷⁾ 고종 즉위 후 국가사업으로 수행된 경복궁 중건과 창덕궁 내 두 개 건물의 수리는 모두 정조대의 왕권강화 의지를 계승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그렇지만 경복궁 중건 공사가 지속되면서 친정 선포 무렵이었던 1873년(고종 10) 경에는 이미 민생의 피로도가 심해졌고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비판 여론도 거세졌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고종은 자신의 사재인 내탕금을 내어 다소 무리라 할 수 있었던 건청궁의 건축을 경복궁 북쪽에 성사시켰다. 경복궁 중건 사업은 당시 갓 즉위한 어린 국왕 고종의 의지가 들어있기 힘든 사업이었지만, 건청궁 건축은 고종의 의지가 들어간 사업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1873년 5월 부호군 강진규(姜晉奎)는 다음과 같이 건청궁 공사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돌아보건대 오늘날 토목 공사가 1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전을 다시 짓고 각사(各司)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한 번 고생하여 오래도록 편안하게 지내려는 계책에서 하는 일이라면, 백성들이 비록 고생스러워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재물이 고갈되어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이 절름발이나 앓은뱅이나 귀머거리나 장님이나 할 것 없이 즐거

27) 이민아, 「효명세자, 현종대 궁궐 영건의 정치사적 의의」, 『한국사론』 54,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8, 210~219쪽.

이 일터에 나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피곤이 쌓였고 그들의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데, 삼가 들으니 건청궁을 짓는 일이 자못 크고 화려하다고 합니다. 이는 가끔 나가 실 장소인데 저렇게 화려하게 지어서 어디다 쓰시려고 비용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것입니까? 더구나 창고에 불이 나서 한창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시 이렇게 정도에 지나친 공사를 하신다면, 백성들의 고생은 더욱 심해지고 나라의 저축은 더욱 바닥나게 될 것이며, 검소한 성상의 덕에도 손상되는 바가 작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서울이나 팔도나 작은 일이라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정치에 한 번이라도 잘하는 일이 있으면 만백성이 우러러보고 정치에 한 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사방에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비용을 줄여 절약하는 일에 힘쓰시고 크고 사치스러운 일은 하지 마소서.”²⁸⁾

오랜 토목 공사에 민심이 피로하니 국고의 낭비가 되는 건청궁 공사를 중단해야 국왕으로서 권위가 설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고종은 ‘다만 옛터에다가 조상의 뜻을 받들어 몇 십 칸 집을 짓는 것’이며, ‘크고 화려하게 짓지 않으려고 유사도 두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강진규의 지적에 대해 ‘만백성이 우러러보고 사방에서 탄식을 하게 된다는 말은 왕가(王家)의 제일 중요한 말이니 감탄하고 가상하게 생각한다’라고 칭찬하면서 그의 의견을 수용하는 듯 했지만, 건청궁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다.²⁹⁾

경복궁 공사의 피로도 속에서 중첩된 건청궁 건축에 대한 우려는 고종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청궁 문제는 이로부터 얼마 뒤인

28) 『승정원일기』 1873년 5월 10일. “顧今土木之役，近十年于茲，正衙重建，諸司改觀。豈是一勞永逸之計，則民雖勞矣，勢不得不爲也，財雖絀矣，事不得不修也。是以環東土跋躐龔替，莫不樂於趨事，勇於出義，然其力則固疲，其心則固瘁矣。於此而伏聞乾清宮經始之役，頗尙宏麗云，此不過時備臨幸之所，而將焉用彼壯麗，而過爲靡費也。加之倉厥失火，修繕方張，復有此過度之役，則民力重困，國儲愈絀，而其於昭儉之德，所損非細矣。況庭衢八荒，無微不顯，一政之善，萬姓孚顯，一政之疵，四方憂歎，伏乞務從省約，勿事侈大。”

29) 『승정원일기』 1873년 5월 10일. “適因舊趾，肯構幾十間堂屋，予意攸在，六偉幾竣，而自內經紀，初不任有司，是不欲壯麗之意也。然爾言如是，條條切實，至於萬姓孚顯，四方憂歎之句云云，此爲王家之第一要語，予豈不感歎，尤庸嘉尙。”

1873년(고종 10) 8월에 다시 연석에 올랐다. 좌의정 강노(姜澔)는 강진규의 상소에 내린 비답을 통해 건청궁 조성을 알았다면서 공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토로했다.

“재신(宰臣) 강진규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보고서야 비로소 건청궁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 경비를 궐내에서 지출하고 해당 관청에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로(大老) 합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곳이 어진(御眞)을 봉안하는 곳으로서 칸수가 매우 적고 제도도 화려하지 않으며, 또한 놓고 있는 좋은 자리라 하여 대로 합하께서 이렇게 조치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신들은 모두 일의 체모로 보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내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10년 동안 토목 공사를 일으켜놓고 또다시 이와 같은 역사(役事)를 벌여 놓았으니 앞으로 공사가 그칠 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에 대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 내막을 일깨워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동안에 이루어진 2, 3천 칸에 달하는 대공사에 사용된 경비가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인 만큼 지금은 전날보다 곱절이나 더 절약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어 모든 재물의 소비에 대하여 더욱더 절약하도록 힘써 주소서.”³⁰⁾

위의 강노의 의견에서 볼 수 있듯이 건청궁 조성은 좌의정이었던 강노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사안이었다. 10여 년간 지속된 경복궁 공사로 민생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또 다른 토목 공사를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종의 답변은 물려섬이 없는 것이었다.

30) 『승정원일기』 1873년 8월 19일. “伏見宰臣姜奎疏批下者, 始知有乾清宮造成之事, 而自內經用, 不任有司, 且又承聆於大老閣下, 審知御眞所奉之所, 問架甚少, 制度不麗, 又是空閒賣地, 大老閣下所措辦者也. 雖然, 臣等皆知其事體之不得不然, 至於遠外之人, 不識其本末, 必謂十年土木之餘, 又有此役興作, 無時可已云, 而此不可家喻而戶說者也. 前後數三千間鉅役用費, 皆出於民, 此時節愛, 宜倍於前日, 所望深留聖念, 凡於財用所費, 益懇節省焉.”

상이 이르기를,

“진술한 내용이 매우 간절하니 마땅히 마음에 새겨두겠다. 그런데 이 궁의 건설에 사용되는 비용을 호조의 재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내탕고의 돈만을 사용하는 것 또한 내가 되도록이면 경비를 절약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한계원(韓啓源)이 아뢰기를,

“이 궁은 창덕궁의 주합루와 서향각을 본뜬 것으로서 일의 체모로 보아 그만 둘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어찌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참으로 그렇겠다.”

하였다.³¹⁾

고종은 강노의 걱정에 대해 호조의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내탕고만을 사용하여 경비를 절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종 역시 당시 토목공사의 곤란함을 알고는 있지만 사비를 털어서라도 건축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강노의 언급을 통해 이 사안은 흥선대원군이 동의했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당시의 시점은 대원군이 정권에서 축출되기 직전이었던 때문에 단순히 대원군만의 의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종 자신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종이 무리가 되더라도 건청궁 공사를 강행한 이유는 우의정 한계원의 언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건청궁이 창덕궁의 주합루와 서향각을 본뜬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이였다. 성인이 된 고종은 정조가 설립한 규장각 건물을 자신이 살고 있던 경복궁에 재현함으로써 정조 계승을 통한 국왕권의 확립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정조 계승책은 고종이 자신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이는 그가 성년이 되고 친정에 임했던 즈음에

31) 『승정원일기』 1873년 8월 19일. “上曰, 所陳懇摯, 當服膺, 而此宮營辦之費, 不以度支, 而只以內帑者, 亦予務從省略之意也. 啓源曰, 此宮倣東闕之宙合樓·書香閣也, 事體之不可已者, 而遠人何以知此乎. 上曰, 誠然矣.”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 친정 선포 무렵 고종이 국왕으로서 정국주도의 시도를 하고 있을 시기에 유생들의 상소에서 '황극' 용어를 이용하여 국왕권을 논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유생들은 서원복설 상소, 시무 상소 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상소에서 고종이 국왕의 표준을 세워 문제 해결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평양 진사(進士) 노창(盧煒)이 인현서원(仁賢書院)을 복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소에서 '황극을 세워 표준을 삼아야 한다'는 당위가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그가 우 임금의 낙서(洛書)의 뜻을 부연하여 인간의 떳떳한 도리를 펴서 밝히고 황극을 펴서 정치의 표준으로 삼으며, 여러 가지 징조를 살펴 길흉을 알게 하였으니, '의심난 것을 상고한다. [疑稽]'는 것과 '다스림을 덕으로 한다. [德用]'는 것은 밝힘과 다스림의 지극한 교훈을 내려준 것이고, '복으로써 향하게 한다. [福嚮]'는 것과 '극으로 위엄을 보인다. [極威]'는 것은 권면하고 징계하는 밝은 교훈이라고 하겠으니, 기자의 스승된 도리가 여기에서 지극하다고 하겠습니까. 임금으로서나 스승으로서의 전(殿)이나 원(院)을 모두 갖추어 만하니, 이는 섬기기를 한가지로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중첩되어 설치되었다고 하면서 허물어야 하겠습니까.”³²⁾

또, 경상도 진사 송은성(宋殷成)의 시무 상소에도 황극은 등장한다.

“대저 황극이 가운데에 있어 구주(九疇)의 강령이 되고 황종(黃鐘)이 가운데에 있어 중률(衆律)의 근본이 됩니다. 중이란 것은 천하의 달도(達道)이니, 강구하고 학습하지 않으면 또한 어떻게 그 양단(兩端)을 찾겠습니까. 강론하여 이연(怡然)히 터득한 결과 간직하고 살피며 분노를 경계하고 욕심을 막아 지극히 크

32) 『승정원일기』 1883년 12월 24일, “以其推演洛書, 敍明彝倫, 數皇極而爲標準, 察庶微而知休咎, 疑稽德用, 垂明又之至訓, 福嚮極威, 寓勸懲之炯戒, 則箕子爲師之道, 於斯至矣. 以君以師, 殿與院之俱存, 卽事之如一之義也, 何可謂之疊設而撤之哉.”

고 바른 표준을 구하면, 보고 느낄 즈음에 감화가 신속하게 된 나머지, 안으로는 온갖 상서가 모여들으로써 일신이 편안하고 나라가 부유하며 존귀와 영화를 보 전하여”³³⁾

내정을 닦아 외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당대의 시무 대책을 논한 상소에서 국왕이 표준을 세워야 한다는 당위가 언급되고 있다. 현안을 논의하는 다양한 상소들에서 황극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고종 친정 이후 당대의 현실 공간에서 국왕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었던 1880년대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고종이 영·정조대 논해졌던 황극 개념을 현실 정치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1890년까지는 대왕대비, 왕대비 및 익종의 존호 추상을 알리는 조서에서 황극을 논하며 국왕이 표준을 세우고 복을 나눌 것을 추상적으로 공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³⁴⁾

2) 대한제국기 고종의 전통적 국왕권 인식의 변용

국왕이 표준을 세워야 한다는 황극론은 1897년(고종 34)에 접어들자 다시 강력한 요구로 등장했다. 1897년 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간 지 한 해가 다 되어가면서 환궁을 청하는 상소가 올라오는데 이러한 상소에서는 황극 용어를 통해 주장이 개진되고 있다.

1897년 2월(양력) 유학 조성훈(趙性薰) 등은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다.

“신들이 들으니, 흥범에 이르기를, ‘임금이 그 표준을 세운다.’고 하였고, 전(傳)에 이르기를, ‘집에 등마루가 있는 것과 같고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으면 모든

33) 『승정원일기』 1884년 3월 20일. “夫皇極居中，而爲九疇之綱，黃鍾處中，而爲衆律之本。中也者，天下達道，苟非講學，亦何以叩其兩端乎。講論而怡然有得，操存省察，懲忿窒慾，求至大中之極，則觀感之際，風動神速，內而百祥鼎臻，安富尊榮。”

34) 『승정원일기』 1890년 1월 1일, 1890년 1월 11일, 1890년 3월 12일, 1890년 11월 3일, 1890년 12월 7일.

별들이 그리로 향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이는 제왕이 하늘의 뜻에 따라 표준을 세워 천하를 다스리는 대경(大經)과 대권(大權)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 지난봄부터 겨울까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시고 대궐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까지 늦춰지고 있으니, 온 나라 신민들이 안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밖으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 임금이 정중(正中)에 자리하는 것은 황극을 세우는 것과 같으니 훌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³⁵⁾

국왕이 중심에 자리 잡고 황극을 세워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는 논리로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환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후 칭제를 청하는 상소로 이어졌다. 1897년 9월 외부협관 유기환(兪箕煥)은 다음의 상소를 올렸다.

“신이 『서경(書經)』 홍범전(洪範傳)을 삼가 읽어 보니, ‘임금이 표준을 세운다. [皇建其有極]’고 하였습니다. 무릇 복희(伏羲), 황제(黃帝), 요(堯), 순(舜)을 황(皇)이라 일컫고 제(帝)라고 일컫은 것과 우(禹), 탕(湯), 문(文), 무(武)를 왕(王)이라 일컫은 것은 명호(名號)가 같지는 않지만 표준을 세운 것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오제(五帝)의 세상에서는 황제(皇帝)보다 존귀한 것이 없고, 삼대(三代)의 시대에는 왕(王)보다 높은 것이 없었으니, 여기에서 황이 왕이고 왕이 곧 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漢) 나라과 당(唐) 나라부터 송(宋) 나라과 명(明) 나라까지 인군(人君)의 위호(位號)는 한결같이 황제로 존귀함을 삼았으니, 신하된 자가 누군들 자기 임금을 지존(至尊)의 자리에 두고 지존의 칭호를 정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³⁶⁾

35) 『승정원일기』 1896년 12월 30일(양력 1897년 2월 1일). “臣等聞洪範曰，皇建其有極，傳曰，如屋之有脊，如北辰居所而象星拱之，此帝王所以應天立極，以統率乎普土之大經大權也。… 夫何自春徂冬，還御尙遲，舉國臣民，內而憂慮，外而疑懼，莫之止屆… 君位正中，如皇極之建也，可不美哉。”

36) 『승정원일기』 1897년 9월 1일(양력 1897년 9월 26일). “臣伏讀洪範傳曰，皇建其有極，夫義·黃·堯·舜之稱皇稱帝，與夫禹·湯·文·武之稱王，名號不同，而其所以建極則一也，故五帝之世，尊莫如皇，三代之時，高莫如王，是知皇亦王也，王即皇也。降自漢唐迄宋明，人君位號，一以皇帝爲尊，則爲人臣者，孰不欲使其君處至尊之位，而正至尊之號也哉。”

유기환은 표준을 세우는 것이 지존이며 지존을 일컫는 칭호는 한 나라 이후 한결같이 황제였다는 논리로 고종에게 칭제를 요청하고 있었다. 황국 개념의 활용은 유생들의 상소에서도 또한 나타난다.

“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중정(中正)과 인의(仁義)로써 인극(人極)이 확립되고, 숙철(肅哲)과 성모(聖謀)로써 황극(皇極)이 서게 됩니다. 인극은 도통(道統)이 나오게 된 바이고 황극은 제통(帝統)이 나오게 된 바입니다. 대개 당요(唐堯), 우순(虞舜), 송(宋) 나라, 명(明) 나라는 천자의 자리를 계승하여 천하의 지극한 표준을 세웠으니, 대개 제통과 도통의 전해진 것은 유래가 있는 것입니다.”³⁷⁾

이처럼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직전 칭제 논의는 황극을 세우는 자에게 황제를 칭해야 한다는 논리를 통해 제시되었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 고종은 강력한 황제권 확립을 위해 일련의 정치적 작업을 이어갔다. 그런데 강력한 황제권의 확립은 당대의 정치지형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1898년(광무 2) 11월 독립협회 해산 조치를 보면 고종은 민의 정치 개입과 군주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했다.³⁸⁾ 하지만 황성신문 등 고종의 만민공동회 해산을 비판했던 여론의 분위기가 존재했고, 이는 그 자체로 고종의 황제권 확립 노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고종의 황제권 확립을 위한 행보는 이어졌다. 1898년(광무 2) 말 시점에 갑오개혁 세력 제거, 흥선대원군 사망,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세력 진압으로 전제군주제 확립의 기반이 조성되었고,³⁹⁾ 1899년(광무 3)에는 도통과 제통의 계승자로서 고종의 위치를 선포한 유교진흥 조칙, 법규교정소 설치, 황제권을 규정한 「대한국국제」 반포가 연이어 추진되었다. 1899년~1900년에는 정변 음모가 잇따랐기 때문에,⁴⁰⁾ 황제권을 확보해야 하는 실질

37) 『승정원일기』 1897년 9월 5일(양력 1897년 9월 30일). “館學儒生進士李秀丙等疏, 曰, 伏以, 臣等竊以謂, 中正仁義, 人極立焉, 肅哲聖謀, 皇極建焉, 人極, 道統之所由出也, 皇極, 帝統之所由作也.”

38) 『고종실록』 1898년 11월 26일.

39) 도면화, 「황제권 중심 국민국가체제의 수립과 좌절」, 『역사와현실』 50, 한국역사연구회, 2003.

적 필요가 대두된 시점이었다.

고종은 6월에 내린 교정소 설치 조칙의 첫머리에, '임금이 크게 표준을 세우는 것은 대개 백성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천명하면서 황극 개념을 사용했다.⁴¹⁾ 이어서 8월에 고종은 「대한국국제」를 반포했고, 여기에는 대한제국의 500년 역사와 전제정치, 황제의 무한한 군권 및 군권 침해에 대한 견제가 들어있었다.⁴²⁾ 황제권을 무한하다고 규정하며, 누구라도 군권을 침손하는 행위를 한다면 신민의 자격을 잃은 것이라고 선포하여 강력한 황제권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 시기 황극 용어의 언급은 황실의 위엄을 높이고 제국으로서 면모를 갖추는 사업들에 집중되었다.⁴³⁾ 1899년(광무 3) 9월 고종은 장헌세자(莊獻世子)를 장종(莊宗)으로 추숭하여 4대조의 위엄을 확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⁴⁴⁾ 이 작업은 8월에 궁내부 특진관 서상조(徐相祖)가 장헌세자를 왕으로 추송하고 정조에게 존호를 추상하는 예를 행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본격화되었다. 서상조는 자신의 증조부 서유린(徐有隣)과 조부 서준보(徐俊輔)가 정조를 가까이서 모시며 정조의 속마음을 잘 알았던 점을 강조하며, 서준보가 철종대에도 정조의 존호 추상을 청했던 역사를 진술했다. 대대로 정조와 깊은 인연이 있었던 집안의 특수성이 있는 인물로서 대한제국 선포 후에 장헌세자 추송 논의의 운을 띄운 것이다. 이 상소의 도입부에서 서상조는 고종이 '천명을 받들고 황극을 세웠으며 선대의 일을 계승하는 것'을 찬탄했다.⁴⁵⁾ 황극 용어가 황실의 위엄을 높이는 추송 논의에서 나타

40) 도면회, 「정치사적 측면에서 본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 『역사와현실』 19, 한국역사연구회, 1996, 25~27쪽.

41) 『고종실록』 1899년 6월 23일. “皇建有極者, 蓋欲使民取法也.”

42) 『고종실록』 1899년 8월 17일. “第二條, 大韓帝國의 政治는 由前則五百年傳來 亨 시고 由後則 萬世不變 亨 오실 專制政治 이니라. 第三條, 大韓國 大皇帝 게 오셔는 無限 亨 은 君權을 享有 亨 읍 시나니 公法에 謂 亨 바 自立政體 이니라. 第四條, 大韓國 臣民이 大皇帝의 享有 亨 읍 신 君權을 侵損 亨 行爲가 有 亨 면 其已行未行을 勿論 亨 고 臣民의 道理를 失 亨 者로 認 亨 지니라.”

43) 대한제국 수립 이후 고종의 황실 상징화 작업에 대해서는 도면회, 앞의 논문, 1996, 31~38쪽 참조.

44) 4대의 추존에 대해서는 서진교, 앞의 논문, 2001, 83~88쪽 참조.

45) 『승정원일기』 1899년 6월 27일(양력 1899년 8월 3일). “獲觀我陛下, 膺寶命·建皇極·序天秩·修人紀, 凡所以繼先志·述先事者, 克審克慎, 靡不庸極. 臣不勝欽仰攢頌”

나는 것이다. 고종은 이 상소에 내린 칙지에서 ‘정조가 원했으나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일’로 장헌세자 추숭 작업을 규정했다.⁴⁶⁾ 이로써 고종은 정조가 하지 못한 사업을 계승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위상을 위치 지었다.

또한, 국가를 연 단군의 묘를 높여 단군릉으로 봉축할 것을 청하는 상소,⁴⁷⁾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두 개의 수도를 세운 것이 상례이므로 평양을 서경으로 할 것을 청하는 상소⁴⁸⁾에서도 고종은 하늘의 명을 받고 황극을 세운 황제로서 일컬어졌다. 이 시기 황극 개념은 고종이 강력한 황제권을 수립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만 나타나고 있었다.

4. 맺음말

영·정조대 황극론의 심도 있는 논의는 19세기 세도정치기를 거치면서 발전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세도정권의 독단적 정국운영이 지속되면서 국왕의 실질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세도정권이 물러나고 고종이 즉위하자 국왕의 역할과 관련해 황극 개념을 둘러싼 논의들이 다시 나타났다. 세도정치기 잠시의 중단 상황은 겪었지만 19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황극 개념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고종 초기 황극 개념을 이용한 국왕의 역할은 국왕과 신하 간 조화의 측면에서 고종에게 학습되었다. 사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전통적 국왕 교육을 접하지 못한 상태로 미성년 나이에 국왕 자리에 오른 고종은 즉위 초반 장관 및 신료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었다. 당대 관료집단의 국왕권 인식은 신하와 함께 협력하는 관계였으며, 이러한 관료 중심의 국왕권 이해는 고종 즉위 초반 경연 자리에서 고종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친정 이후 고종이 정치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가져오려고 시도하

46) 『승정원일기』 1899년 6월 27일(양력 1899년 8월 3일). “此我正廟不忍言不敢言之事也.”

47) 『승정원일기』 1899년 12월 29일(양력 1900년 1월 29일). “獲觀我聖上受天命，肇建皇極”

48) 『승정원일기』 1902년 3월 24일(양력 1902년 5월 1일). “惟我皇上陛下，誕膺峻命，肇建皇極”

면서 황극 개념도 국왕 중심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용도로 변화되었다. 재위 후반기인 대한제국기에 고종이 만들어간 황제권 인식은 즉위 초기 교육의 내용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고종은 여러 정치 집단들 사이에서 영·정조대와 같은 표준의 설정자로서 국왕의 역할을 자임했다. 고종은 전통적 국왕권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고종이 추구한 군주권은 황제의 강력한 전제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고종이 성인이 되고 국정을 이끌어 가야 했던 19세기 후반의 대내외적 환경은 그 이전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이 시기 '황극'이라는 용어 자체는 고종의 황제권 확보와 관련된 칭제 요청과 조종의 추송 논의에서만 대부분 나타났다. 전통적 황극 개념은 황제권 확보를 위해 필요할 때 표면적 의미로만 이용될 수밖에 없었다.

고종 재위 후반기 전통적 황극 개념은 영·정조대 군주권에 대한 군신 간 논의와 현실 정치에서 활용을 계승했다기보다는 황제국 수립 과정에서 황제의 전제권을 공고히 하는 측면으로 활용되었다. 19세기 말의 대내외적 환경은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변화를 맞이했고, 군주권을 둘러싼 인식과 논의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 참고문헌

1. 사료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御亭文稿』

『瀛齋集』

2. 단행본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장영숙, 『고종의 정치사상과 정치개혁론』, 선인, 2010.

조재곤, 『고종과 대한제국 황제 중심의 근대 국가체제 형성』, 역사공간, 2020.

3. 논문

김 호, 「요순 정치의 회복, 다산 정약용의 홍범(洪範)론」, 『한국학연구』 6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나종현, 「조선후기 제왕학의 발달과 정조의 황극론」, 『태동고전연구』 51,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3.

도면희, 「정치사적 측면에서 본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 『역사와현실』 19, 한국역사연구회, 1996.

_____, 「황제권 중심 국민국가체제의 수립과 좌절」, 『역사와현실』 50, 한국역사연구회, 2003.

서진교,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실 추송 사업과 황제권의 강화의 사상적 기초」, 『한국근현대사연구』 19, 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왕현중,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와 개혁 논리」, 『역사학보』 208, 역사학회, 2010.

이윤상, 「대한제국기 황제 주도의 재정운영」, 『역사와현실』 26, 한국역사연구회, 1997.

이민정, 「朴世采의 '皇極' 인식과 君主像」, 『한국사론』 5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11.

한보람, 「19세기 시무개혁 세력의 성장과 개혁론의 성격 - 박규수와 어윤중의 계승 양상을 중심으로 -」, 『한국사상사학』 64, 한국사상사학회, 2020.

Understanding the Hwanggeuk(皇極) Theory and its Variations during Gojong's Reign

Han, Boram*

Recognition of King Gojong's sovereignty is a very important topic that serves as the basis for discussing national reform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However, King Gojong's move to establish royal authority was not simply a sudden attempt arising from King Gojong's adoption of a method of proclaiming an imperial state in the face of the challenges of the times in establishing a modern state. It was in the context of discussing the concept of a 'Hwanggeuk(皇極)' related to the king's political management in Joseon since the 17th century.

It was during the royal lecture(經筵) that King Gojong, who came to the throne at a young age, first encountered knowledge about the royal authority. Analyzing the contents of 「Gyeongyeongangoui(經筵講義)」, a record of Kim Young-jak, a representative figure who took part in the royal lecture as a member of the reformist bureaucratic group centered on Park Gyu-su at the time, the core of the royal authority delivered to King Gojong was the respect and complement of the king and his servants. Early on, King Gojong was in a position to ask questions and receive education from his servants about the king's authority and the meaning of 'Hwanggeuk'. Prior to his direct rule, the theory of 'Hwanggeuk', which means that the king leads the national opinion, was practically impossible for King Gojong, the subject of education, and it was understood to King Gojong in the context that the king should be able

* Lecturer, Daejeon University

to communicate between the king and his servants rather than standing as the ruler of state affairs.

After King Gojong's direct rule, discussions on the theory of 'Hwanggeuk' have also changed. Shortly before the declaration of his direct rule, King Gojong began to attempt to establish the royal authority through the succession of King Jeongjo by constructing Geoncheonggung(乾清宮) that imitated Gyujanggak(奎章閣). During this period, the term 'Hwanggeuk' mainly appeared in the appeals of Confucian scholars who demanded that the problem be solved by setting the king's standard. In reality, the theory of the role of the king was raised. However, during this period, it is not seen that King Gojong was actively using the theory of 'Hwanggeuk' in real politics.

From the time of king's removal to the Russian legation(俄館播遷) to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Empire, the argument asking the king to set standards reemerged as a strong demand. Appeal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Hwanggeuk' and the firm decision to return to the royal palace from Russian legation appeared intensively during this period. Later, the removal of the power of the Gabo Reform, the death of Heungseon Daewongun, the suppression of the Public Gathering of Ten Thousand People(萬民共同會), and the Independent Association(獨立協會) laid the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bsolute monarchy. In 1899, King Gojong declared the possession of infinite imperial power through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Emire' and attempted to actively secure the imperial power. However, the term 'Hwanggeuk' at this time only appears in the records related to Dangun, Pyongyang, the worship movement of the Crown Prince Sado, and King Jeongjo and Yeongjo. The theory of 'Hwanggeuk' at the time was only used to defend the absolute power of the emperor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 imperial state, away from the discussion between the king and his servants on the monarchy of the Yeongjo and Jeongjo periods and the use of it in real politics.

In the early years of King Gojong, the theory of imperialism was learned by King Gojong in terms of harmony between the king and his servants. However, as King Gojong attempted to bring political initiative to himself, the theory of imperialism was also changed to exercise king-centered authority. King Gojong was leading state affair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traditional concept of royal authority. However, rather than moving forward from the philosophical discussion of the monarchy of the Yeongjo and Jeongjo periods, the concept of imperialism was transformed to establish the leadership of the emperor of the time based on the traditional concept of political management.

Key words : Hwanggeuk(皇極), 「Gyeongyeongangoui(經筵講義)」, Constitution of the Korean Emire, imperial power, Kim Young-jak